

2005년 환경부 업무보고

- 머리말 -

기술개발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방안이다.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청정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전 세계 특히 아시아의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전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고, 반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는 등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사회전반에 총량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사후에 지원하기보다는 사전에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4대강 수질개선 대책과 관련해)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전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하겠으며 다만 현재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위주의 관리에서 더욱 포괄적인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략환경영향 평가는 갈등해소를 위한, 상당히 좋은 제도로 환경부가 잘 하고 있으나 이를 실시하더라도 협의기간 지연, 비용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협의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불리하지 않음에도 처음 하는 것이어서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더 어렵지만 정부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가 약속했던 것은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